

“나주 금천교차로 입체화 해주오”

영암·강진방면 좌회전 길 출근시 정체 극심
혁신도시 확정 이전 설계…운전자들 검토 요구

국도 1호선과 국지도 49호선이 교차하는 나주시 금천교차로를 신호체계 대신 입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영암·강진 방향으로 출근하는 운전자들은 매일 오전 8시 전후 금천교차로를 통과하기 위해 흥역을 치려야 한다.

국도 1호선 하행선 금천교차로 지점에서 좌회전 신호를 받아 국지도 49호선을 이용해 영암·강진 방향으로 가기 위해 극심한 교통체증을 겪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광주에서 산포 입구 고가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던 차량들은 서행하는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앞차를 추돌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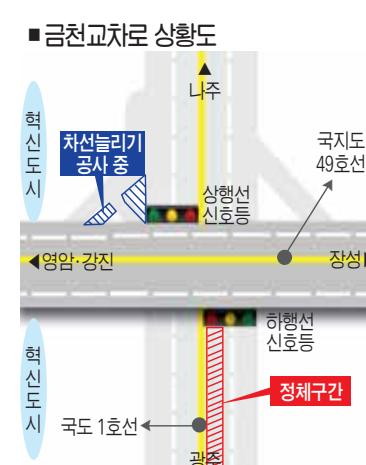
더욱이 나주 혁신도시가 완공되고 내년에 나주 다시에서 국도 1호선과

연결되면 나주시내를 통과하지 않고 목포 쪽으로 향하는 차량들도 금천교차로에서 국지도 49호선을 이용하게 돼 있어 교통체증이 현재보다 훨씬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나주경찰은 이 같은 문제점 개선과 향후 대책에 대해 익산 국토청과 광주 국토관리사무소에 관련 공문과 건의를 수차례 보냈다.

광주 국토관리사무소는 지난 9월 국지도 49호선 개통 후 1개월 만에 교통체증 문제점이 드러나자 추가로 사업비 7억여 원을 긴급부임, 교차로 개선공사에 들어갔다.

광주 국토관리사무소는 연말 준공을 목표로 문제의 좌회전 차로와 49호선으로 올라가는 진입로를 1차선에서 2차선으로 늘리고, 신호체계도 연동화 시스템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로 파악하지 않고 출속으로 설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익산 국토관리청 관계자는 “문제가 되고 있는 금천교차점은 혁신도시가 확정되기 훨씬 이전에 완공된 도로로, 현재 진행중인 보완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사정이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그때 문제로 대두되면 그 때가서 재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한 “13호선에 위치한 본덕 IC 설치는 남부지역을 오가는 물동량이 이곳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생각돼 설치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해명하고 “혁신도시 조성초창기 당시 산포와 금천교차로 사이에 혁신도시로의 진입로 조성 필요성을 관계 당국끼리 논의했으나 기획재정부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현재 단보상태로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국지도 49호선은 영암·강진 등 남부지역 차량통행을 위해 장성 물류센터에서 시작해 국도 13호선과 국도 1호선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로, 추석전인 9월 하순에 개통됐다.

/나주=정철현기자 chjung@

하지만 운전자들은 “차선을 늘리고 어때신 신호체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교통난은 완전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며 신호체계가 아닌 입체화교차로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교통체증 원인으로 관계당국이 국지도 49호선 설계당시 13호선을 교차하는 본덕 IC는 입체화(나비교차로) 시설로 만들면서, 이보다 훨씬 많은 차량이 통행하는 국도 1호선 교차지점인 금천 교차지점은 신호체계를 도입해 ‘당시 현지 사정을 제대



김장재료 할인해요

28일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조영조) 하나로클럽 남악점을 찾은 목포지역 주부들이 김장배추를 고르고 있다. 28~30일 사흘간 열리는 김장시장 특별 직거래장터에서는 배추와 젓갈류, 마늘, 양념류 등 김장재료 일체를 10~30% 할인판매 한다.

〈농협 전남지역본부 제공〉

영산강 중·하류 홍수 걱정 끝

담양 홍수조절지 준공…내부엔 주민 편의 시설



영산강 지류인 응천에 ▲제수문 및 헐월류제 3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제방 7.85km의 시설을 조성해 375만m³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다. 장마철 홍수량을 초당 550t에서 110t으로 최대 80%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는 28일 김건호 사장과 최형식 담양군수, 구자명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홍수조절지 건설사업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담양 홍수조절지 건설사업은 지난 2009년 담양군 담양읍과 월산면 일원에 착공, 총사업비 1145억원을 투입해

영산강 지류인 응천에 ▲제수문 및 헐월류제 3개소 ▲유출입수문 3개소 ▲제방 7.85km의 시설을 조성해 375만m³의 홍수조절 능력을 갖췄다. 장마철 홍수량을 초당 550t에서 110t으로 최대 80%를 낮출 것으로 기대된다.

3개의 홍수 조절지는 홍수기에 일시적으로 불어난 하천 물을 조절지에 잠시 가둬둔 후 하류지역 하천수위가 낮아지면 서서히 방류해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절지 내부에는 축구장, 족구장 등 체육시설, 생태체험이 가능한 습지와 관찰데크 등이 설치돼 평상시에는 주민들의 여가활동 및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됐다.

또 제방 상부에는 자전거 도로와 산책로를 조성하고 백합나루·이팝나무·느티나무 등을 식재했다.

신송은 전남지역본부장은 “담양 홍수조절지를 죽녹원, 관방제림 등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화순군 이양·청풍면 일원 지역 1.25km 면적에 조성되는 화순 홍수조절지는 내년 3월께 완공될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동함평산단 여론 분열 중단하라’

대한노인회 결의대회

합평지역 주민들이 지역갈등 해소와 성공적인 동합평산단 조성을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한노인회 합평군지회(지회장 정병규) 회원 600여 명은 지난 27일 노인복지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군민의 여론을 분열시키는 획책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거리 캠페인을 벌였다. <사진>

정병규 지회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동합평산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내용이 담긴 전단지가 각 가정에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 지역 갈등이 극에 달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앞서 대동면 기관사회 단체장(7일)과 합평읍 이장단협의회(단장 윤귀숙) 회원들도 동합평산단 성공을 기원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병규 지회장은 “누구의 잘잘못을 가리자는 취지는 아니고, 동합평산단이 성공적으로 추진돼 인심 좋고 살기 좋은 환경으로 되돌아가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합평=황운학기자 hwang@

목포대 풍력 서비스 인력 양성 새길

국내 최대 교육용 발전기 준공

국내 최대 규모의 교육용 풍력발전기가 목포대학교에 세워졌다.

목포대학교는 지난 27일 목포대 대외협력관에서 풍력발전기 준공식(사진)과 해상풍력 서비스 인력양성 발전방안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목포대는 세계 5대 풍력산업 하브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는 전남도의 ‘5GW 풍력 프로젝트’ 운영과 유지보수

에 필요한 특화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7억 1500만 원을 들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했다.

풍력발전기는 스페인 ACSA-A27 모델의 종형으로 타워 높이 31.5m, 회전자 지름 27m, 정격 출력 225kW다.

목포대 관계자는 “발전기에서 얻어지는 전기는 대학의 유수 전력으로 활용하고, 해상풍력 서비스 인력양성의 현장 실습과 다목적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김치 삼합’ 아시나요

해남 행복마을축제위, 김장축제서 시식회

‘흥어 삼합’보다 맛있는 ‘김치 삼합’을 해남에서 맛 볼 수 있게 된다.

해남 황산 기성 행복마을 축제위원회는 12월 1일 황산면 우한리에서 ‘2012 해남 김장 나눔축제’ 행사 일환으로 김치삼합 시식행사를 갖는다.

김치삼합은 황산면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든 김치, 삶은 돼지고기, 황산면 앞바다에서 제취한 지주식 김으로 삼을 써 먹게 된다. 산지에서 나온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끓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다.

또한 이번 행사에서는 다문화가정 100가정이 참가하는 김치담그기와 관광객들을 위한 김치담그기 체험, 1700여 포기의 김치를 이용한 대형 하트 김치 만들기 행사 등이 다채롭게 열린다.

김치삼합은 황산면에서 생산된 배추로 만든 김치, 삶은 돼지고기, 황산면 앞바다에서 제취한 지주식 김으로 삼을 써 먹게 된다. 산지에서 나온 신선한 재료를 사용해 끓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강진 쌀 5t 첫 호주 수출

강진산 쌀이 처음으로 호주에 수출길에 올랐다. 28일 강진군 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한들농협(조합장 강운기)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포장 단위는 4kg, 10kg, 20kg 등으로 나눠 소비자 선택 기회를 넓혔다.

한들농협 호주 수출 물량은 1차로 5t을 출고해 지난 17일 부산항에서

선적했으며, 오는 12월 9일쯤 호주에 도착할 예정이다. 내년 2월쯤 2차로 한들농협 관내에서 생산된 쌀을 본격 수출할 계획이다. 포장 단위는 4kg, 10kg, 20kg 등으로 나눠 소비자 선택 기회를 넓혔다.

/강진=남철희기자 choul@

대한민국 대표 한자 외국어 SERIES

2012 DAENEUNG's Best Seller
DAENEUNG's Best Seller

한권으로 해외로 하는 외국어 도서의 최강자

대능교육만의 노하우가 담긴 포켓북 시리즈는 학습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들만 골라 담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교재입니다.



* 알파벳 여행회화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7,000원
■ 상황별 핵심 문법과 활용단어로 구성
■ 여행지의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 주제별 단어장 시리즈 외국인 감수 각권 6,000원
■ 교육부 지정 필수 단어 수록
■ 각 주제에 맞는 유용한 팀과 응용회화로 구성



* 한자능력 검정 시리즈 대능한자연구회
■ 급수별 한자색인, 다양한 활용단어 수록
■ 예상문제를 통한 기출문제의 성향, 학습성취도 평가

수험생을 위한 맞춤 고사성어백과
내신·입시·한자능력검정시험 및 국가적 기출문제 표지
알파벳 고사성어백과 값 8,500원